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세계성찬주일]

인도자 : 가족 대표

##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570장 ..... 다같이

1.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2.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 주신다
  3.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 주신다
- (후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 기 도 ..... 가족 중

## 성경봉독 ..... 마가복음 5장 25-34절 ..... 인도자

- |                               |                               |
|-------------------------------|-------------------------------|
| 25.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
|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   |
| 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 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
| 중하여졌던 차에                      | 31.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 |
|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 | 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
| 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 32.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려 보시 |
| 28.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 | 니                             |
| 으리라 생각함일러라                    | 33.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  |
| 29.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 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니   |
|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 |
|                               | 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

## 설 교 ..... "믿음의 터치" ..... 인도자

##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1.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 힐링캠프와 테마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힐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믿음의 터치

마가복음 5:25-34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69일 만에 구조된 33인 중 두 번째 구출된 마리오 세불베는 이런 말을 했다. “(땅 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악마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싸웠고 하나님이 이겼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았다. 나는 구조될 것을 확신했다.” 악마와 하나님이란 절망과 소망 가운데에서의 대화가 아니었을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결정할 힘은 없다 해도, 삶이 우리에게 안겨 주는 것들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빅터 프랭클은 말했다. ▶ 본문은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치유, 혈루병 여인의 치유, 야이로의 딸 회생 등 연속기사의 중간이다. 예수님께서 존각을 다투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삽입된 이야기다. 주인공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으로 그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재물도 허비했지만, 건강은 더 악화되고 절망만이 남은 여인이었다.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걸었다. 물론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지 못했지만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실 때 직접 안수하셨는데 이번에는 여인이 예수님께 안수한 셈이다. 율법적 관점으로 보자면(레 15:25-30) 유출혈(하혈, 혈루증, 부인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이 탄다하여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고, 그녀가 만지는 모든 것은 불결하게 된다고 하여 사회에서 격리된 생활을 했다. 또한 당시 관습으로 여자가 남자의 옷자락을 먼저 만져 끌어당긴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 그런데도 여인은 무리에 섞여 있다 예수님을 만졌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져야 할 때도 있다. 예수님을 멈추시게 해야 하고, 나를 주목하게 해야 하고, 나를 치유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나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나의 주도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을 붙들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공휩과 은혜를 붙들 수 있다면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그런 만짐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내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눅 8:4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만져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을 연결고리로 하여 능력은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헌금해야 한다. 믿음의 터치가 기적을 가져온다. ▶이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전지한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심은 여인의 치유를 풍성하고 온전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확신을 주시기 위해, 평안을 주시기 위해,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물으셨다. 예수님을 만진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무안당하고 꾸중 당할 일이 아니다. 여인은 자신의 질병과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기회를 가졌다.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34절). 그녀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전인적 구원을 주신 것이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낚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 만지는 적극적인 믿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가? 예배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기도드릴 때, 찬송할 때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이다.